한성대신문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760-4186
발 행 인 이 상 한 편집인겸주간 나 은 미
편집국장 박 종 민
디 자 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1976년 12월 15일 창간 | Press.hansung.ac.kr | 2017년 3월 6일 월요일 제520호

▲ 2월 21일 낙산관대강당에서 열린 학생 토의회에서 김준호(산공 4) 총학생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총학생회, 수강신청 문제로 학생토의 개최

지난 2월 21일 오후 1시 총학생회가 낙산관대강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의에는 약 4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총학생회는 "변동이 많은 이번 수강신청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김준호(산공 4)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학교에 요구하겠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답변했다.

한편, 이번 수강신청으로 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일부 학생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국민신문고 학생 민원에 대한 총학생회 입장'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25일 한성대학교대나무숲(이하 한대숲)에 해당 문서가 유출되었다. 해당 문서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미 해결된 상태이며 일부 사항은 해결을 위해 학교 측과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총학생회의 입장을 담고 있다. 이것을 본 일부 학생들의 비난이 이어졌고, 이에 총학생회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부에는 학교와 사이좋은 총학생회장, 대학본부에는 언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 총학생회장, 학우여러분께는 의견을 잘 수렴하는 총학생회장이라는 3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업무를 행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문지수 기자 answltn15@hansung.ac.kr

지면안내

보도 '학생설명회'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02**

신입생 특집 신입생을 위한 학내 프로그램 안내 **03**

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본소득' **04**

사람人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만나다 **05**

학술 사관은 기록한다 사관은 논한다 **06**

문화 한성대를 여행하는 외톨이를 위한 안내서 **08**

2017년 신입생 행사 다채롭게 열려

이번 신입생들은 본교가 교과과정을 트랙제로 바꾸고 난 후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다. 지난 수시·정시 합격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하여 신입생 예비대학과 새내기 새로배움터, 입학식이 차례로 열렸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수시 입학생과 정시 입학생으로 각각 나눠 열렸다. 수시 합격생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은 1월 19일~20일, 정시 합격생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은 2월 22일에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각 오리엔테이션은 개식사와 대학생활 소개, 트랙소개, 캠퍼스 투어 등 같은 구성으로 진행됐다.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신입생들은 트랙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상상관 지하2층에 설치된 트랙 부스에 직접 방문하여 재학생과 교수에게 상담을 받았다. 이날 이상한 총장은 신입생들에게 "여러분들은 한성대학교의 희망이다. 한성대학교도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교내 캠퍼스 투어에서 양유림(인문 1) 신입생은 "학교에 처음 와봐서 모르는 것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시설이 나쁘지 않아서 좋다"고 말했다.

신입생 예비대학은 2월 23일에서 24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됐다. 23일에는 신입생들의 기초학습역량 평가를 위해 영어, 수학 Level Test를 치뤘다. 이후 새내기 대학생활 TIP과 학생회 프로그램 같은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안내가 있었다. 24일은 낙산관 대강당에서 주간과 야간 학생들이 각기 다른 시간에 모여 수강신청 안내를 듣고 컴퓨터 실습실에서 수강신청을 했다.

▲ 1월 19일 수시합격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트랙별 부스에 방문하는 신입생들의 모습

▲ 2월 27일에 열린 새내기새로배움터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새내기새로배움터가 2박 3일 동안 열렸다. 새터에서는 단과대학 트랙별 선배와의 만남의 시간과 단과대학 트랙 자랑 등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그밖에도 신입생 장기자랑, 동아리공연 등을 통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새터 첫날 최승규(인문 1) 학생은 "설레어서 잠을 약간 설쳤다. 새터가 재미있을 것 같고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입학식은 3월 2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2017학년도에는 총 1560명이 입학했다. 입학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장학증서 수여, 이사장 축사, 총장 환영사, 신입생 선서 그리고 교가제창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종훈 이사장은 "여러분의 성공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성대학교에서 무한한 꿈과 희망을 펼쳐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장성재(사회과학 1) 신입생은 "고등학교 때보다 좀 더 자유롭고 재밌는 대학생활을 기대한다"고 입학 소감을 전했다.

이한신 기자 faith7631@naver.com

제보모집

익명보장·상시모집
hansungnews@gmail.com

기자사령

임
부국장 문지수(영문 3)
정기자 이한신(경영 3)
박원경(국문 2)

면
김민식(무역 12)

‘학생설명회’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2017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학생설명회〉

작년 12월 2일 진행됐던 ‘2017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학생설명회’에서는 학사구조 개편에 대해 학생들과 조세홍 교무처장, 이형용 학생처장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당시 대학본부는 일부 질문에 대해 ‘학생설명회’ 이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따라서 한성대신문사는 지난 2월 28일 조 처장과 김성자 학사지원팀 팀장 외 업무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확인했다.

▲ 지난 2월 28일, 한성대 신문사와 인터뷰 중인 조세홍 교무처장

현재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인 트랙제도 시행안

지난 설명회에서 처장들은 트랙제도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 ‘거의 최종안이 나온 상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내부에서 협의 중인 공과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들의 트랙제도 교육과정 최종안은 확정 됐다. 공대의 최종안이 늦어지는 이유는 공대 트랙전공선택의 학부공통과목 중에 기준 이수학점을 초과한 강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공대의 트랙제도 교육과정 최종안이 대략 3월 10일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해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조 처장은 “공대의 최종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 교육과정에 변동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트랙제도에 따른 전공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1년이 남은 시점에서, 학생들의 수요변화에 따라 더 좋은 방향으로 변동될 것”이며, “현재 확정된 졸업이수요건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

지난 설명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쏠림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질문했다. 당시 대학본부는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도 쏠림현상에 대한 마땅한 대답은 없는 형편이다. 조 처장에 따르면 “이번 학기의 수강신청에서는 어느 한 트랙에 쏠림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예측된다”며, “이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예비대학 등을 통해 학생들이 트랙을 선택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대학본부측은 성적 장학금 편제에 대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취약계층 장학금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며,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진 상태이다. 이에 대해 장학복지팀은 “성적장학금 편제는 올해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처장들은 과별 집단 상담제도 요구에 대해 “현재 기획한 상담제도에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학기 중에 최대한 교수와 학생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전체 강의 시간을 조정하여 목요일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트랙별 집단 상담’과 ‘라이프디자인 데이’를 통해서도 소통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랙별 집단 상담’은 각 트랙별로 약 4개의 조를 만들어 전공 교수 한 명과 여러 명의 학생들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트랙별 집단 상담은 이번 학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트랙제도를 가동하기 시작한 지금,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랙제도가 처음 실행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트랙제도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학본부의 빠른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 처장은 “학교는 지난 2월에 시행됐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예비대학과 같은 소통의 창구를 통해 앞으로 학생과의 소통을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방침을 시사했다.

앞으로 트랙제도를 실시하면서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naver.com

수강신청 대란, 하나부터 열까지

MON	TUE	WED	THU	FRI	SAT	SUN
2월 6일	7	8	9 **[수강신청책자 발행]**	10 **[장바구니 시행]** 총학생회, 교무처장 및 학사지원팀, 학생지원팀 간담회	11	12 **[장바구니 마감]**
13 **[장바구니 연장]**	14	15 **[4학년 수강신청]** 총학생회, 입장문 발표	16 **[3학년 수강신청]** 학사지원팀,총학생회 요청답변 게시	17 **[2학년 수강신청]**	18	19 학사지원팀, 수강정원증원 안내문 게시
20	21 총학생회 주관 학생 토의	22	23	24 **[신입생 수강신청]**	25	26

2017년 1학기 수강신청에 대해 낙산의메아리(이하 낙메)와 한성대학교대나무숲(이하 한대숲) 등 학교 관련 각종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수강신청책자

2016년도 2학기에는 수강신청 책자가 7월 8일에 발행되어, 7월 13일인 장바구니 시행일보다 5일 빨랐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장바구니 시행일 하루 전인 2월 9일 오후 8시에 수강신청 책자가 발행되었다. 또한, 4학년 수강신청일 전날 내용이 변경되어 불이익을 겪은 학생도 발생했다. 학사지원팀은 “2017년 교육과정에서 개편되는 내용이 많아, 학과와 개설강좌에 대한 정보를 조율하고 취합하는 기간이 필요했다. 제한된 시간 내 급박하게 진행되어 생긴 오류 및 지연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교양 3학점

이번 학기에 2학점 교양이 대폭 줄고 3학점 교양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20학점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4학년 학생들이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학사지원팀은 교양이 3학점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 “트랙제 도입으로 인한 교양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을 위해 3학점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20학점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2학점 단위 교양과목의 정원을 확대하고, 신입생을 위한 2학점 교양필수 과목을 마지막 학기자가 우선 수강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이수학점을 21학점으로 늘리는 것을 총학생회를 통해 제안했다. 김준호(산공 4) 총학생회장은 “다음 학기에는 21학점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학칙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의계획서

이번 학기에도 강의계획서가 올라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번 학기부터는 강의계획서 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지난학기 강의계획서 조차 참고할 수 없어 학생들의 불만이 배가 되었다.

이에 학사지원팀은 “강의계획서 입력에 대한 사전 안내를 보완하고, 향후 강의계획서가 기한 내 입력될 수 있도록 추후 교수업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강의계획서를 참고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다음 학기에는 수강신청 기간 내 강의계획서가 올라올 수 있도록 교수협의회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 15일 총학생회는 온라인(낙메, 한대숲,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2월 10일 간담회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발생할 문제를 예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학생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학교와 중재를 하려했던 점, 비겁했던 학생회장이었던 점을 학생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대학본부에 전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입장문과 함께 게시했다. 또한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듣기 위해 2월 21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학생토의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학교와 학생간의 마찰이 생길 경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며 현재 모든 사안을 문서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2월 16일 학사지원팀은 총학생회가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학사공지에 게시했다. 또한 2월 19일에는 총학생회가 전달한 학생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초교양 및 사이버강의의 수강정원을 증원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문지수 기자 answltn15@hansung.ac.kr

#한성 #타임라인

2017학년도 합격생 학부모 초청행사 열려

지난 2월 25일, 입학홍보팀의 주최로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합격생 학부모 초청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이상한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직원, 신입생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들에게 신입생들의 진로, 대학생활 그리고 취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초청행사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열렸다. 1부 행사는 보직교수 및 학장 소개, 무용과 공연, 학교동영상 상영, 총장 인사말, 신입생 영상편지, 졸업생 강연, 교내 학생프로그램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2부에는 낙산관 체육관(3층)에서 학부모들과 트랙별 교수들이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는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탐방할 수 있는 교내 캠퍼스 투어가 있었다.

이날 초청행사에서 이상한 총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찾을 수 있는 학생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신 기자 faith7631@naver.com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마쳐

▲ 이종훈 이사장을 비롯한 외부 인사들의 모습

지난 2월 17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들과 이종훈 이사장을 비롯한 외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박사 31명, 석사 188명, 학부 1120명으로 총 1339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대학원에서 ▲최우수논문상 7명 ▲특별공로상 3명 ▲성적우수상 18명 ▲공로상 21명 ▲대학원 총동문회장상 3명이 수상했다. 학부에서는 ▲성적우수상 24명 ▲학과추천 공로대상자 67명 ▲특별공로상 9명 ▲동문회장상 2명 ▲학사학위과정 성적최우수상 1명이 수상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이상한 총장은 “여러분들은 오늘 학위과정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는다. 어느 분야에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은 한성대학교의 기본이념인 진리와 지선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정우(경영 13) 졸업생은 “요즘 취업난이 심해 사회에 나간다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막상 졸업하니 기분이 좋다”고 졸업소감을 밝혔다.

이한신 기자 faith7631@naver.com

성북구, 국가제례시설 ‘선잠단지’ 발굴

지난 1월 11일 성북구는 조선시대 국가제례시설 중 하나인 ‘선잠단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발굴현장은 성북동 성북초등학교 옆 63-31번지 일대이다. 선잠단지는 누에 농사의 풍년을 비는 선잠제를 올렸던 선잠단이 있는 곳이다.

선잠단지는 이전까지 제단위주로만 복원된 상태였다. 이에 성북구청은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 발굴 작업을 시작했고, 이듬해 1월 원터를 확인하는 것에 성공했다. 이번에 발굴된 원터는 기존 복원된 367평의 선잠단지를 포함해 옆 도로까지 이어지는 큰 규모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선잠단지 발굴현장에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추진에 있어 이번 문화재청과 성북구청의 연합은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성북구의 자산으로 보존 및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김 구청장은 “정부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이다. 이 발견이 국격을 말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여 정부의 지원을 바란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원터 복원작업에 들어갈 경우 복원까지는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동정란

김동환(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교수

김 교수는 2017년 1월, 2년 임기의 한국문학교육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나도 도전해볼까? 대학생활 꿀팁 대방출!!

▶학생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혹은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은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리검사

개인의 심리적 건강, 기질 및 성격, 대인관계 특성, 강점 등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여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이다. 그 종류에는 MMPI-2(다면적인성검사), PAI(성격평가질문지), MBTI(성격검사), TCI(기질 및 성격검사), CST (성격강점검사), Holland 적성탐색검사, 문장완성검사, HTP 그림검사가 있다.

집단상담

상담사와 10명 내외의 참여자들이 함께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담이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개인상담과 달리 집단상담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거나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프로그램 종류에는 감정조절 프로그램, 의사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자아성장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한성 또래상담 프로그램

전문적인 상담자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학교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또래 상담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스스로가 또래상담자가 되어볼 수도 있다. 또래상담자는 매 학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선발되며, 상담 교육을 받은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평등상담

학내 구성원들의 성적 자율권을 보장하고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다. 또한 홈페이지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법, 예방교육 자료를 게재되어 예방교육과 온라인 상담도 할 수 있다.

※상담신청은 학생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혹은 학생상담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 : 02-760-4171, 5813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www.hansung.ac.kr/web/hscc

▶취업창업지원팀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수기간은 6개월이다. 4학기이상 이수자 중 총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해당국가 체류에 필요한 비자취득 가능자여야 하고 학칙에 의해 징계 중이거나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 학기초과자 또는 산학협동교육과정에 의한 학점취득이 20학점 이상인 자 역시 지원이 불가하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HANSUNG

기존 ICCE로 운영되던 해외인턴십으로 HANSUNG으로 이름이 바뀔 예정이다. 연수기간은 12개월이고 6학기 이상 이수한 자와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미국 현지기업의 인턴과정에 전공별 실무를 경험하여 직무 관련 경험 및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미국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한 사람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WEST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WEST)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하는 어학연수와 인턴근무를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연수기간은 어학 6개월, 인턴 6~12개월이다. 4학기 이상 이수한 자와 최근 1년 내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자체현장실습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한 현장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점으로 인정하며, 기업 등에서 우수한 인재를 탐색 또는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수기간은 4~6개월이고 4학기 이상 이수한 자가 지원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에 대해서만 학점과 장학금이 지급된다.

취업창업페스티벌

하반기 취업시즌 때 열리는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의 대학 현장 채용 및 회사소개, 취업전략 등을 취업준비생들에게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 및 스킬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다. 본교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및 페스티벌 참여기업의 홍보, 취업마인드를 고취하고 취업에 관심이 있는 저학년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특강, 직무설명회, 직무멘토링, 취업컨설팅 등이 있다.

취업창업팀 전화번호 : 02-760-4295

▶학생지원팀

Hansung Success Frontier

특정 주제(전공, 부전공, 관심분야)에 관련한 선진 기관의 탐방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팀 구성원이 직접 방문할 국가 및 기관을 조사하여 탐방한다. 지원금의 90%는 출국 전 지급하고, 10%는 결과발표회 평가 후 지급한다.

서울 동행프로젝트

재능나눔 활성화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해 대학생 봉사자들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 및 예·체능 활동 등을 지원한다. 교과목 학습지도, 초등 돌봄교실, 특기적성 지도, 체험학습 지원, 기획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우리 대학과 구내식당, 삼선동, 자원봉사 학생들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삼선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급되는 생활보조비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분들에게 공휴일을 제외한 주5일 동안 점심 도시락을 배달한다. 학기 중 봉사와 방학 중 봉사로 나누어진다.

해외봉사단

해외봉사단은 매 학기 초에 봉사단원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3개월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하계방학과 동계 방학 때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 해외봉사단이 교외 단체의 도움을 받는데 비해, 우리 대학의 해외봉사단은 봉사지 선정부터 봉사활동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현지에서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지원팀 전화번호 : 02-760-4221

▶교육역량개발센터

한성 튜터링

튜터와 튜티들(최대 5명)이 그룹을 이루어 특정 전공과목을 8주 동안, 매주 2시간씩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한 그룹만 활동이 가능하다. 튜터와 튜티 전원에게 비교과포인트 30pt를 부여한다. 튜터에게는 튜터링 종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활동한 그룹이 A등급이거나 과목 성적이 A이상일 경우 문화상품권 2만원을 튜티에게 지급한다.

글로벌 튜터링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의 공부, 학교생활, 한국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9주 동안 매주 2회에 걸쳐 4시간씩 활동한다. 튜터와 튜티에게 비교과 포인트 50pt를 부여한다. 튜터 지원자격은 총 평점 3.0이상이며 튜티의 지원자격은 본교 재학중인 외국이 유학생이다.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학생이나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의 학습과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멘토와 멘티에게 비교과 포인트 40pt를 부여한다. 멘토는 총 평점 3.0 이상이며 해당 과목에서 B+ 이상의 성적을 받고 지도교수 및 학과의 추천에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낙(樂)산 학습나눔 프로그램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성여고 학생들의 영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 재학 중인 여학생 중 총 평점 3.5 이상인 자만 지원할 수 있다. 교직이수자, 영어지도가능, 성적우수자 및 한성여고출신학생을 우대한다. 매주 4시간씩 10주 동안 활동하며 멘토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40pt가 부여된다.

낙(樂)산 공모전

1학기 중순에는 PPT탬플릿공모전을 한다. 학교에서 강의나 발표 때 학교를 상징할 수 있는 PPT탬플릿(제목, 목차, 배경화면)을 학생이 직접 디자인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2학기 중순에는 나만의 학습전략 Know-How 공모전을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학습방법을 에세이로 작성해 제출한다. 두 공모전 모두 지원자격의 제한은 없으며 참가 시 비교과 포인트 5pt, 입상 시 15pt를 추가로 받게 된다.

컨설팅과 워크숍

학습컨설팅은 전문 상담사와 1:1 혹은 팀을 이루어 전문적인 상담 및 학습코칭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학기 중에는 학기 초와 중순에 나눠서, 방학 때는 학기 말에 모집한다. 매주 50분 상담으로 평균 3, 4주 활동한다. 1회 참석 시 비교과 포인트 10pt, 최대 30pt까지 받을 수 있다. 학습법 워크숍은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 4회에 걸쳐 매 학기 중순에 진행한다. 1회 참석 시 비교과 포인트 10pt, 모두 참석 시 50pt를 받는다. 두 프로그램 모두 지원자격의 제한은 없다.

낙(樂)산 스터디 그룹

특정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 본교 재학생들끼리 4~5명의 인원을 구성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소모임 구성 후 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역량개발센터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참가 인원들마다 10만원의 활동비, 활동 종료 후 팀별로 순위를 매겨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비교과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교육역량개발센터 전화번호
02-760-5816
교육역량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www.hansung.ac.kr/~ctl

▶국제교류협력팀

영어권 국제교류 프로그램

본교에는 방학 중 단기연수 프로그램(미국, 호주)과 학기어학연수(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1+1(영어+전공)어학연수(미국), 교환/방문학생 프로그램(미국, 영국, 캐나다), Disney college프로그램이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지원자격과 프로그램기간, 선발시기, 혜택이 다르므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면 된다.

중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중국의 자매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자격을 갖춘 학생이 1학기 또는 2학기 동안 해당 대학에서 전공을 비롯한 교양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다. 파견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고 3월에 파견되는 것과 9월에 파견되는 것이 있다. 또한 지원자격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면 된다.

일본 교환학생 프로그램

일본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본교와 상호 교류협정을 체결한 일본 자매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통해 본교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은 물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속의 한 성인으로서 폭넓은 사고와 능동적인 인성을 배양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파견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고 파견 시기는 4월 파견과 10월 파견이 있다. 지원자격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CHINA&JAPAN Summer School 프로그램

본교에서는 매년 여름방학 기간 중 중국 및 일본의 자매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SUMMER SCHOOL - 한국어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해당국 언어로 간단한 회화가 가능한 본교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은 자매대학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 등을 설명해 주는 일을 한다. 기간은 매년 8월 중 14일간이다.

국제교류협력팀 전화번호
02-760-4266, 4205, 5591
국제교류협력팀 홈페이지
http://www.hansung.ac.kr/web/international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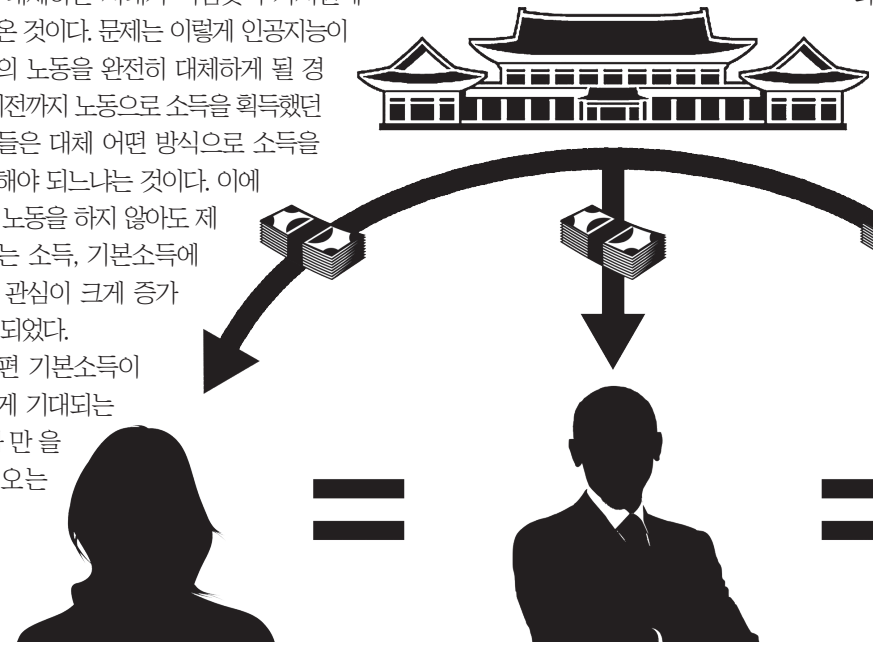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본소득'

21세기 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옛말은 여전히 당연한 진리처럼 느껴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그 임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한다. 하지만 아무런 일을 안 해도 돈을 준다면 어떨까?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토지배당금'을 비롯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해 시민단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안효상 상임이사는 '소득양극화'를 이유로 제시했다. 양극화 현상은 그 자체로도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된 원인은 대략 2년 전부터 양극화의 해결책으로 국내에 들어온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은 국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는 경제정책이다. 즉,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을 향상시켜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를 살리는 정책인 것이다. 기본소득은 바로 이런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받는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필연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소득수준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안 이사는 '알파고' 역시 주요한 이유로 뽑았다. 최고의 바둑기사를 이겨낸 인공지능 알파고의 등장은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어렴풋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경우, 이전까지 노동으로 소득을 획득했던 인간들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획득해야 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을 하지 않아도 제공되는 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기본소득이 이렇게 기대되는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제공되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 방해받을 것이라는 비판들이 바로 그것이다. 안 이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기본소득은 세계 각국에서 조심스럽게 실험되고 있다. 인도는 최근 빈곤 퇴치를 위한 일인당 연간 113달러가량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는 이를 위해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연구를 진행했다. 이 경우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오히려 삶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의욕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결과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기본소득의 도입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전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소득을 지급한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기존 한국의 조세부담율인 24%를 OECD 평균 수준인 34% 로 높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계산에 따르면 이처럼 조세부담율을 높인다면 기존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 달에 30만 원정도의 기본소득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엄밀히 말해 완전한 기본소득이라기 보다는 '낮은 단계의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이라든지 장애여부와 같은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도기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한때의 이슈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숙제이다. 인공지능과 기술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 사회가 대부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었을 때, 안 이사는 "기본소득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바야흐르 청년빈곤시대, 기본소득을 '인간다울 권리'라고까지 부르짖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과연 기본소득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봄을 선사할 '생명수'인가, 아니면 단순히 잠깐의 갈증을 달래줄 '감로수'인가? 그 해답은 이 사회를 짊어지고 가야할 청년세대가 풀어야할 문제일 것이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졸업유예 마저 부담이 되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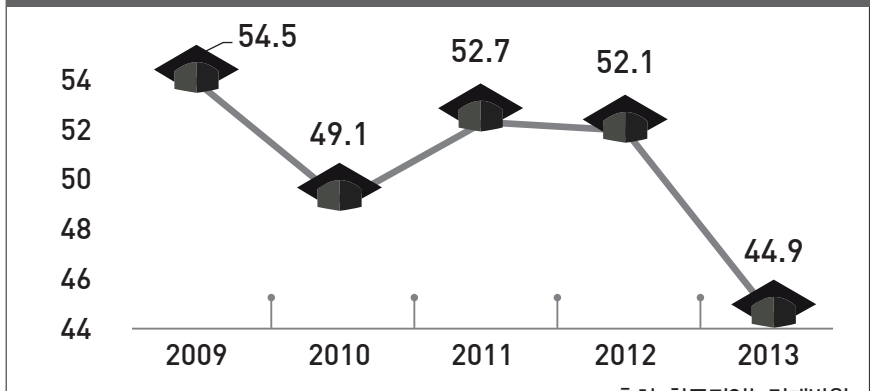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우선. 대학차원의 배려도 필요해

"졸업유예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주변 반응도 반반이에요. 요즘은 졸업유예도 하려면 돈이에요" 강모군(동국대 4)은 취업을 못했지만 졸업유예를 선택하지 않았다. 졸업유예에 필요한 최소 학점을 두거나 학점에 따라 등록금에 차등을 두는 등 졸업유예에 제약이 너무 많아, 졸업예정자들이 무작정 졸업을 '유예'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졸업유예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학생'의 신분으로 취업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서다. 심각한 취업난이 지속되는 사회에서 졸업생은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졸업유예자의 취업률이 일반 졸업자의 취업률에 비해 평균 약 3% 높다. 기업은 졸업생보다는 재학생을 선호하고 학생들은 졸업유예기간 동안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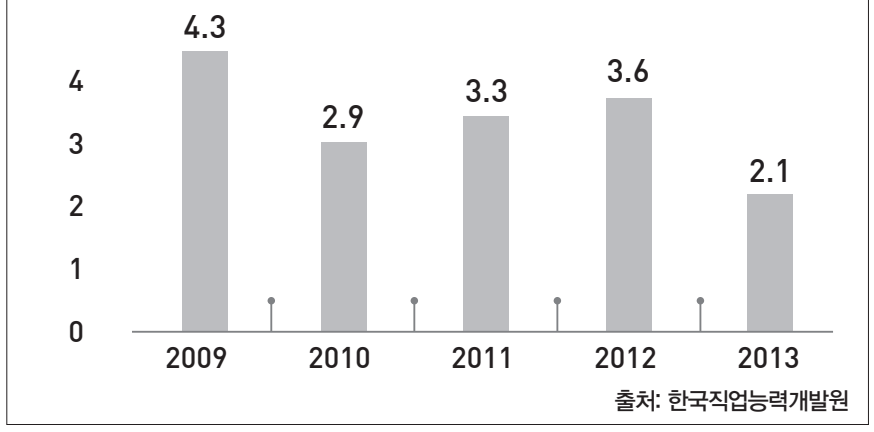
하지만, 대학은 졸업유예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교육부 대학 평가 중 전임교원 확보율 등에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을 요구하는 등 자체 규정을 강화했다.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졸업유예를 하기 위해 최고 77만 원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생들은 졸업유예마저 선택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졸업유예자 비중 추이 (단위: %)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졸업유예 여부별 취업률 (단위: %)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일각에서는 우선 졸업유예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와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육부는 "졸업유예가 대학 자체 규정에 의해 운영된다"는 이유로 졸업유예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2013년 이후로 졸업유예 학생들에 대한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졸업유예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난 2007년 이후로 현재까지 교육부는 졸업유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비영리 청년NGO단체인 청년이여는미래는 '대학졸업유예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우선적으로 교육부가 졸업유예 학생들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교육부가 졸업유예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평가에 졸업유예 학생 수를 재학생과 따로 집계하고 그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대학 콘텐츠 제공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졸업유예 학생들을 위한 대학 차원에서의 배려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재학생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취업기관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졸업유예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거나 취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취업에 관련되어 졸업생과 재학생을 차별하는 문화에 대한 지적도 있다. 청년이여는미래는 "기업은 기졸업자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야 하고 대외활동 주최기관은 대외활동 자격요건에 졸업 유무를 포함시키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여전히 졸업유예를 고민하고 있다. 나날이 높아지는 졸업유예 비용과 까다로운 조건들이 이들을 힘들게 한다. 이들을 위한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대학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지수 기자 answltn15@hansung.ac.kr

이 기자의 정치사전

대권주자로의 등용문, 대통령 후보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경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를 뜻한다. 대통령 후보 경선은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다수의 후보를 두고 치루는 당 내부의 선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은 당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선방식 역시 존재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 방식으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했다. '완전국민경선제'란 모든 국민이 경선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모두 동등한 1표를 행사하는 방식의 경선을 말한다. 특히 이번 더민주당의 경선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보수 지지층의 붕괴로 '경선이 곧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한 후보는 더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며, 만일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할 시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로 대선후보가 선출된다.

대통령 후보 경선은 거의 모든 정당들이 자신의 정당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이전까지 '대권잠룡'으로서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당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되어 전폭적인 지원 아래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을 치르게 된다. 즉, 대통령 후보 경선은 대권주자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진정한 의미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대통령 후보 경선은 당의 일을 결정하는 당 내부의 선거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당의 구성원인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 경선의 경우는 당내 파벌의 문제가 깊게 개입된다. 때문에 종종 경선은 당내 파벌들의 힘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비록 대통령 후보 경선은 아니지만, 작년에 있었던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서는 친박과 비박이 정면충돌하면서, 당내 선거의 파벌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의 경우 이야기는 크게 달라진다. 당내 파벌이 개입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폭적인 전략 재수립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만일 당원 대상 투표처럼 파벌의 색을 지나치게 드러냈다가는 중도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중도 지지층을 얻기 위해서 진보 성향의 후보는 우클릭을, 보수 성향의 후보는 좌클릭을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최근 문재인 전 의원이 안보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 내거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보수층을 끌어안는 발언을 하는 이유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중도 지지층을 우선적으로 끌어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선제를 통해 선출된 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 선거에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런 대국민경선제가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 세력이 뛰어난 후보를 의도적으로 떨어트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의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후보에 대한 능력검증보다는 인기투표에 가까워진다는 비판 역시 생각해봐야 할 점이다.

이번 더민주당 경선의 행방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누가 대선후보가 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김영배 성북구청장에게 대학생을 묻다

청년과 동행(同幸)하는 성북구가 될 것

우리는 낭만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연애는 사치가 되었고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이곳은 지성의 상아탑이 아닌 취업으로 가는 톨게이트가 되어버렸다. 대학생들의 길은 잠겨 버렸고 헤엄쳐가기에는 힘에 부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하다. 서울의 자치구들 중 가장 많은 대학이 속해 있는 성북구의 장을 만나 그 동력이 무엇인지 물었다.

대학생들은 구 내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구청장은 "학생들은 시간을 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문 소통 플랫폼(온마을앱)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도 그동안 멀게 느껴졌던 구청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청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좋은 분노'가 필요하다고 김 구청장은 말한다. "대학생들이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사회문제에 무관심하도록 내몰리고 있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무관심이야 말로 최악의 태도"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좋은 분노'를 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김 구청장은 대학생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지붕 세대공감',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지붕 세대공감은 "관내 어르신의 여유 주거공간을 성북구 소재 대학생에게 공유하는 사업으로 대학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에게는 고독감 해소와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로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보다 80% 이하의 임대료로 대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6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로 청년과 동행(同幸)하는 성북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책들 중 하나는 "청년들의 구직 능력강화 및 취업지원을 위해 동선동에 설치한 성북구 일자리카페"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진로상담과 면접코칭 등의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일자리종합정보안내시스템(일자리 키오스크)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은 일을 경험하고 능력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진입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공공일자리 부문 19개 사업, 93개 일자리를 만들어 성북구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 지원에 힘쓰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는 있지만 낮은 시급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기도 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성북구에서는 '문화와 이웃하는 청년'을 진행해 지역 청년들과의 교류로 해당 지역 문화 콘텐츠를 제작했다. 그리고 '그래도 잘 살고 싶은 청년 Party'를 개최해 청년을 위한 버스킹, 연주,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본교는 서울시의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다. 그래서 대학, 자치구, 지역공동체가 협력해 '한성성곽캠퍼스타운 – 예술로 물드는 성곽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향후 대학과 성곽마을 주민이 협력하여 문화예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모여들고, 성곽마을 고령층 주민도 참여하여 역사문화예술마을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북구의 중요한 자산이자 구성원으로 진리와 지선의 가치를 확산해온 한성대 학생들이 구청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삶의 주인으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면 더 나은 성북이 실현되리라 믿는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혁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본교 학생들에게 전했다.

박원경 기자 parkwk94@gmail.com

한성人SIDE 팥고당 대표 박준현 동문을 만나다

"나를 믿는 순간 확신이 생겼다"

Q. 도서관학과(현재 문헌정보학과) 84학번이라고 들었다. 학교생활은 어땠나.

A. 1학년에는 학사경고를 받았을 정도로 학교에 집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2학년부터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다. 우리 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다른 학과 학생들을 모두 알 수 있었다. 교수님과 학생 간의 유대관계도 깊었다. 나는 낭만과 끈끈한 정이 있는 우리 학교가 좋았다. 그래서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다. 한성대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졸업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과학생회장을 하고 총학생회 기획부장을 맡기도 했다. 기획부장을 하면서 총학생회장 선거 공약을 만들었다.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바로 그것이었다. 총학생회가 출범하던 날에는 남다른 각오를 보여주고 싶어, 학생들 통학에 불편함을 주던 삼선교 포도청 담벼락을 허무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당시 축제에 단순히 연예인을 초청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축제에 농아 합창단을 초청했다. 관람 자격은 '커플'이었다. 부모님, 친구, 연인. 누구나 '커플'이 될 수 있었다. 공연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한바탕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기획하는 것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 이후로 방송, 광고, 홍보에 관심이 생겼다. 6개월 정도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하기도 했다. 광고 이론 책들을 필사하는 등 내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Q. 학생활동이 진로에도 영향을 미쳤나.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은 어땠나.

A. 졸업 후엔 우연히 은행에 입사하게 되었다. 지점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영업능력을 인정받아 본사 홍보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때부터 한성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견제를 당했다. 하지만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대학교 시절 총학생회 기획부장으로써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었다. 홍보부에 들어가, 은행이 저소득층 아이들과 결연을 하는 '소년소녀 가장, 꿋꿋하게 자라라' 캠페인을 기획했다.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발상이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상사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 후에는 회사에서도 내가 기획하고 진행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맘껏 진행할 수 있었다.

Q 이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실패를 겪었다. 실패를 극복해낸 원동력은?

A. 조직 안에서 견제를 극복하고 승승장구하자, 뭐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밖은 정글이었다. 실패를 거듭하고 많은 좌절을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았다. 결국 답은 '기획'이었고, 브랜드 컨설팅을 시작했다. 나를 믿는 순간 확신이 생겼다. 하나씩 다시 성공해나갔다. 그러던 중 내가 좋아하는 외식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브랜드 컨설팅을 하는 동안 얻은 노하우로 다시 시작했다. 그렇게 '팥고당'을 성공시켰다.

'한성대'는 모순적이게도 나에게 약점이자 강점이 되었다. 학벌주의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던 시절에는 한성대가 '나'를 평가절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한성대에서 내 역량을 찾았다. 실패를 극복해낸 원동력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문지수 기자 answltn15@hansung.ac.kr

학군사관(ROTC) 58·59기 모집안내

2017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 지원자격
- 연 령 : 임관일 기준(만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8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59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 간 : 2017년 3월 1일~3월 31일
- 방 법 : 인터넷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 정
  - 1차 필기고사 : 4. 8.(토), 합격자 발표 : 4. 28.(금)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 5. 1.(월)~5. 26.(금), 합격자 발표 : 6. 16.(금)
  - 3차 신원조사, 신체검사 : 6. 19.(월)~8. 11.(금), 최종 합격자 발표 : 8. 25.(금)
- 문의처 : 육군학생군사학교(043)830-6031, 지원대학 학군단(02)760-4178 (한성대 학군단)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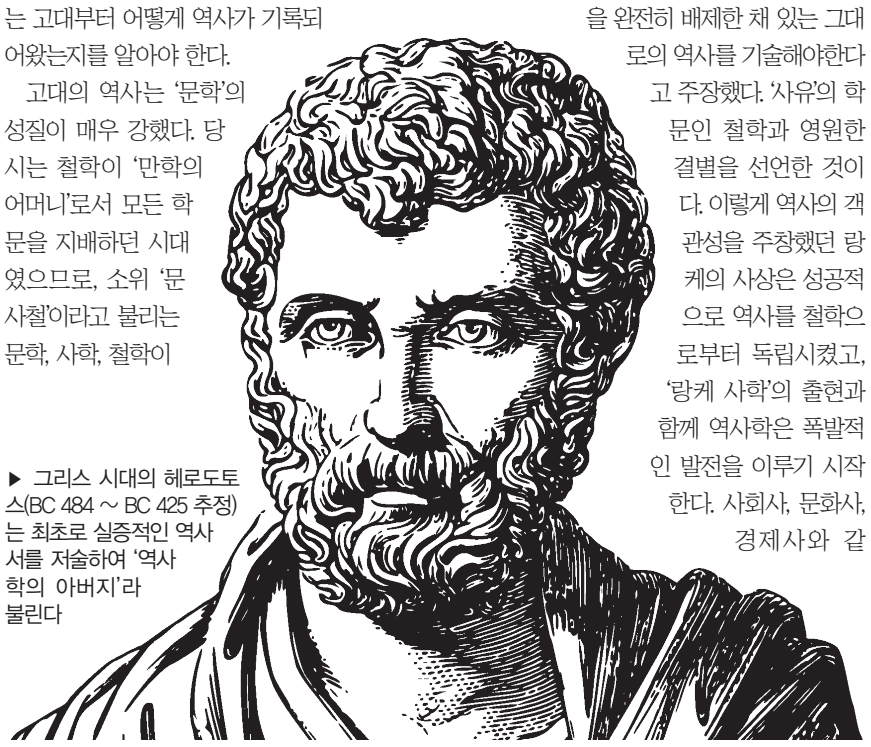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사관은 기록한다 사관은 논한다

헤로도토스부터 현대까지 계속해서 변화해온 '역사'

최근 국정교과서를 기점으로 하여 점화된 '역사논쟁'은 단순히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논란을 낳았다. 역사는 누구의 손에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고, 누구의 입에 논해지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 대체 '누가'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은 어떻게 역사를 엮어야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고대부터 어떻게 역사가 기록되어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고대의 역사는 '문학'의 성질이 매우 강했다. 당시는 철학이 '만학의 어머니'로서 모든 학문을 지배하던 시대였으므로, 소위 '문사철'이라고 불리는 문학, 사학, 철학이 별개로 구분되지 않고 같이 다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역사는 철학의 일환으로 사유되는 종류의 학문이었던 것이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헤로도토스의 저서인 『역사』가 당시 문학의 한 갈래인 서사시와 비극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단적인 예다.



▶ 그리스 시대의 헤로도토스(BC 484 ~ BC 425 추정)는 최초로 실증적인 역사서를 저술하여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린다

19세기 독일의 학자였던 랑케는 이런 역사를 '역사학'이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으로 만들고자 했다. 랑케는 역사가들이 과거의 사료를 발굴하고, 편견이나 선입견과 같은 주관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유'의 학문인 철학과 영원한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역사의 객관성을 주창했던 랑케의 사상은 성공적으로 역사를 철학으로부터 독립시켰고, '랑케 사학'의 출현과 함께 역사학은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다. 사회사, 문화사, 경제사와 같이 역사를 보는 갈래가 나뉘어졌으며, 이에 따라서 이전까지의 문학적이고 평면적인 역사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바라보는 '입체적인 역사'로 변화한다.

현대 역사학계는 랑케가 주장하는 '진리로서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문용선(역사문화학부)교수는 이를 '라쇼몽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쇼몽 효과란 '라쇼몽'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개념으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경험자의 관점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이다. 역사는 단순히 객관적인 '사료'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 역사가의 주관은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다. 결국 저명한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카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말했듯이, 역사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재'에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현대의 역사학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것을 중시한다. 앞서 말한 사회사, 문화사, 경제사와 같은 것들이 바로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는 역사가의 역할이 단순히 '기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논'하는 것까지 확대됐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문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는 국정교과서는 이런 역사학의 본분에도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오직 '정부'만이 '사관'이 되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역사를 편찬하는 것은 역사학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인 랑케(1795 ~ 1886)는 역사를 철학으로부터 독립시켰다

한편, 이렇게 역사를 '논'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일본군과의 로맨스나 매춘을 목적으로 일본군과 동행한 위안부 등의 언급으로 이슈가 되었던 『제국의 위안부』가 좋은 사례이다. 저자인 박유하 교수는 책의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논란은 진화되지 않고 있다. 역사를 논한다면 대체 어디까지 논해야 하며, 역사의 상대성이 과연 무한정 용인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뾰족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들은 흔히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역사는 우리시대를 대체 어떻게 평가할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역사는 애초부터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는다. 먼 미래, 이미 과거가 된 우리시대의 '기록'과 현재가 된 미래시대의 '논(論)'만이 지금의 우리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성북구 이야기

선잠단지를 아시나요?

최근 성북동에서 선잠단지가 발굴되었다. 소문만 무성했던 선잠단의 원터가 확인된 것이다. 오랜만에 시내에서 중요 유적이 발굴되었다는 소식에 학계는 물론 성북구도 들떠있다. 그렇다면 선잠단지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섬잠단지는 선잠제를 지내는 선잠단이 있는 공간이다. 선잠제는 조선시대 국가제례였으며 제사의 주제자는 본래 왕이지만 송나라의 제도를 따라 관원이 대신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선잠제를 지내는 시기는 대개 음력 3월을 넘기지 않았다.

인류 최초로 양잠을 한 사람은 중국의 황비였던 '서릉씨'로 알려져 있다. 설화에 따르면, 어느 날 서릉씨가 차를 마시다 실수로 누에고치를 뜨거운 찻잔에 빠트렸다. 그러자 고치에서 가느다란 실이 계속 풀어져 나왔다. 그때부터 서릉씨는 양잠의 이치를 알게 되었다. 서릉씨가 양잠을 시작하자 백성들도 뒤따라 하였고 비단실을 얻어 비단옷을 지어 입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양잠의 유래이고 서릉씨를 기리는 제사인 선잠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잠은 고대부터 경제의 근간이었으며 여성들은 길쌈을 하며 인류의 의(衣)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먹고 입는 것은 인간으로서 체면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길쌈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었다. 『태조실록』에 농업과 양잠은 의식(衣食)의 근원이고 백성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세조대의 『언해잠서』가 현전되지는 않지만 당시에 언문으로 번역하라고 명했던 만큼 양잠의 생산 주체가 여성임을 의식하고 여성의 독려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선잠제를 통해 알 수 있는 양잠의 내막을 생각해보았을 때, 여성들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주요한 생산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친잠(親蠶)'이라 하여 왕비가 몸소 누에를 침으로써 백성들에게 양잠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백성들이 조금 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여 윤택하게 살기를 바라는 의미였다. 양잠은 이와 같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크게 성행했다. 국영잠실이 설치되어 있던 잠실동이나 뽕밭이 많아 양잠이 성행했던 잠원동의 지명이 그 번영을 짐작할 수 있는 흔적들이다.

하지만 선잠단지는 정작 잠실동이나 잠원동이 아닌 성북동에 위치하고 있다. 선잠단지는 왜 하필 양잠과 아무런 연관도 없어 보이는 성북동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을까. 선잠단지가 『세종실록』에는 동교(東郊)에, 『성종실록』에는 북교(北郊)에 위치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성문화유산연구회에서는 이를 "북쪽은 순음(純陰)이라 하는데, 순수한 음기가 있는 방향과 비단실을 의미한다. 또한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조선시대 선잠단은 동소문인 혜화문 밖에 설치되었고, 정확하게 말하면 북동쪽인 현재의 성북동에 위치하게 되었다.

박원경 기자 parkwk94@gmail.com

▲ 이번에 발굴된 선잠단지 원터 유적의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교수님의 책갈피

'협력적 공유사회' 우리가 대비해야 할 시대!

김귀옥(기초교양교육과정)교수의 추천

"이 책을 읽고 미래 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다가올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또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기반의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쌓기 바라고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든다. 한편 기업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점점 자신들의 영역에 진입장벽을 치며 그 영역에 들어오려는 새로운 기업들을 막고 독점하려고 한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삶을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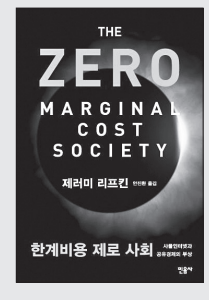
그렇지만 이 책은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현대사회에 '협력적 공유사회'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협력적 공유사회 시스템은 이미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정점을 찍고 서서히 쇠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책은 이를 한계비용을 통해 설명한다. 한계비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다. 저자는 한계비용이 제로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이윤이 점점 고갈되어 결국 자본주의가 쇠퇴한다고 주장한다.

한계비용을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여러 곳곳에서는 지금 그런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일들이 진행중이다. 초기비용만 지불하면 한계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원하는 제품을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3D 프린터,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등 한계비용을 적게 발생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등장하며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저자는 그렇게 변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도 암시한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기업과 공장이 자동화가 되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하지만 한계비용이 제로 수준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얼핏 협력적 공유사회가 도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전제된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과연 협력적 공유사회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어쩌면 저자는 너무 쉽게 미래를 낙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협력적 공유사회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생각은 재화와 서비스는 물론 사회적 자본을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풍요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일어나는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나 브렉시트 등의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보다는 자국만을 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자가 말한 이 협력적 공유사회가 아직도 유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저자의 말대로 자본주의 시대는 끝이 나고 협력적 공유사회가 떠오를 것인가? 아니면 협력적 공유사회는 그저 희망적인 관측에 불과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한신 기자 faith7631@naver.com



한계비용 제로 사회

저자 : 제레미 리프킨
출판사 : 민음사
출판일 : 2014. 09. 29
책소개 : 『한계비용 제로 사회』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물러나고 급부상할 '협력적 공유사회'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미래상을 보여준다.

의화정 공감의 힘, 공감력을 갖춘 리더를 염원하는 이유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지도자의 덕목을 묻는 질문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감력'을 들었다. 공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말한다. "그렇구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등과 같은 표현은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공감할 때 내는 소리들이다.

이것은 일치함, 즉 '조응(照應)'에 대한 기쁨이 드러난 표지이다. 누군가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은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다. 네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네가 있는 것이다. 함께 할 수 있는 터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니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소통(서로 막힘이 없이 통함)의 경지에 이른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변화가 빠르고 사회가 분화될수록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합할 정도의 공감은 그리 많지 않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누군가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오랫동안 공들여 들여다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바쁘고 힘들다. 그래서 나와 다른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헤아릴 여유가 없고, 이제 그럴 생각도 없어진 듯하다.

그리스어 'empatheia'에서 유래한 '공감'이라는 말은 '안(en-)에 들어가서 고통(-pathos)을 함께 느낀다.'는 의미라고 한다. 나와 다른 누군가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의 고통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랬구나." 한 마디에 내 안을 내주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의 노력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공감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은 고통이 많은 시대라는 것인데, 치유의 대 전제는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이다. 공감이 어려워진 시대, 누군가의 고통을 들여다 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대이기에 더더욱 우리는 고통을 들여다 볼 힘과 용기가 있는 '공감력' 있는 리더를 염원하는지도 모른다.

나은미 교수(사고와표현 교육과정)

기자수첩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

이번 학기에 있었던 수강신청은 많은 학생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수강신청 전에 볼 수 없는 강의계획서, 수강신청 책자 오류, 교양 수업 수강 인원 부족 등 이전 수강신청부터 보였던 문제들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수강신청 기간 동안 학생들은 계속 항의했지만, 대학본부는 총학생회의 공식 답변 요구 이후가 돼서야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계속해서 있어 왔다. 작년 12월에 열렸던 '2017학년도 교육과정개편 학생설명회'는 총학생회와 대학본부가 시험기간에 진행해, 극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설명회를 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학생들도 많았다. 이 설명회에서 학교 측은 재학생들의 전공 커리큘럼에 영향이 없을 것이며, 교양 수업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강신청 책자를 보니 교양은 과목 자체가 줄어들었고, 전공 강의 또한 기초 과목이 폐지되어 있었다. 사전에 아무런 안내도 듣지 못하고, 장바구니 시행 하루 전에 이 사실을 확인한 학생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이런 반발에 대한 학교의 대처 방식 또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시키지는 못했다. 무조건 '노력하겠다', '강구하겠다'와 같은 말들로 이 상황을 무마하는데 급급했다. 애당초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으니, 이러한 결과를 낳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대학본부는 변해야만 한다. 트랙제도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더 이상 악순환이 지속되어선 안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처럼 넘기기에는 학생들의 불만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 대학본부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한다. 이제는 귀를 열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이다.

박원경 기자

낙산에 올라 청년과 함께하는 '공약선거'가 되길

어느덧 3월, 민중의 촛불은 겨울을 견디고 꽃샘추위가 다가왔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2월의 마지막 날에 특검 수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국민들은 탄핵만을 기다리고 있다. 탄핵 후 4~5월 중으로 대선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대선이 재빨리 진행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대선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공약선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약선거'란 말 그대로 각 후보의 공약과, 그것을 실현할 의지를 판단하고 투표하는 경향을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어떤 후보를 통해 구체화 시킬지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선거'는 각 구성원의 합리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공약이 가장 중요할까? 단연 청년 정책과 대학 정책이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정치인들의 공약들이 대체로 안보에 관련된 군복무 기간 단축이나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몇 년째 지켜지지 않은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이나, 대학을 취업사관학교 정도로 취급하는 대학구조개혁 등에 대한 청년 정책이 시급하다.

아직 공약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을 위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탄핵 이후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들은 하루 빨리 청년을 위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의지들을 각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공약선거'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방법이다.

공약은 그 정치인을 대표하는 이미지이다. 지지율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공약을 내놓고 신뢰도를 쌓는 것은 모든 후보가 나아갈 정도(正道)다. 나라의 미래가 될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는 현 시국에서 청년 정책은 청년들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긴박한 대선이지만, 다양한 공약들 속에서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약선거'를 기대한다.

이성현(국문 4)

· 삼 학 송 · 잘못으로 잘못을 덮지 않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늘 그것을 은폐하고 싶다는 생각과 마주친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노출하는 것은 분명 창피하고,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집단이나 사회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질서를 유지하고, 선한 이미지를 유지해야하는 대표집단이나 행정집단은 이러한 은폐의 유혹에 강하게 끌리기 마련이다.

지난 2월 19일 서울과학기술대(이하 과기대)의 새내기새로배움터 진행 도중에 신입생들에게 배부되었던 서울과기대신문 제582호 2천부를 총학생회가 전량 강제 수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문들은 신입생들의 가방에 담겨있었고, 쉬는 시간을 틈타 수거되었다. 수거된 신문들은 다음날 입학식 종료 후 트럭에 실려 나갔다. 강제 수거된 신문에는 학생회비 횡령 사건을 다룬 기사가 실려 있었다.

과기대신문사는 곧바로 진상규명을 위한 취재에 들어갔다. 그리고 차경철 학생처장의 답변을 통해 학생처가 총학생회에 강제 수거를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 차 처장은 "새내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답했다. 학생처가 횡령 사건을 다룬 신문이 신입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미리 수거 조치를 했다고 자백한 셈이다.

다음날인 20일, 과기대신문사는 학생처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기대 학생처는 수거를 지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발행권 침해와 언론탄압이라는 사실은 부인했다. 학생회 국원이 신문을 수거하는 모습과 신문이 박스에 포장되어 방치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SNS와 웹상에 전파되었음에도, 학생처는 답이 없었다.

잘못한 것은 맞는데 언론탄압은 아니라는 식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과기대 학생들은 경악했다. 학내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등에는 이미 학교에 대한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잘못을 묵인하려던 시도가 결국 이런 파국을 만들어내고 만 것이다. 만약 학생처가 해당 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 학생들은 이들을 훨씬 신뢰했을 것이다. 학생에게 신뢰받는 학생처야말로 신입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잘못을 덮으려는 행위는 또 다른 잘못이다. 결국 잘못으로 잘못을 덮는다. 중요한 것은 이 연쇄가 잘못의 규모를 점점 더 키운다는 점이다. 이렇게 늘어가는 잘못이 많아지다 보면 언젠가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도래한다. 신뢰는 그 때 붕괴한다. 그 앞에 남아있는 것은 각 집단 간의 첨예한 갈등뿐이다.

현재 과기대신문사 기자들은 언론 탄압 행위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재발 방지 규정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비오는 날에도 정문 앞에 서있는 기자의 모습은 그 신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하게 해준다. 아직 학생처와 대학본부에 기회는 있다. 과기대 대학본부가 잘못을 잘못으로 덮지 않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

박종민 편집국장

낙산만평

박종민(국문 4)

글쓰기 상담 신청 안내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에서는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글쓰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글쓰기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학부생
상담 기간 | 2017년 3월 6일(월) ~ 2017년 6월 2일(금)
상담 영역 | 리포트, 서평, 칼럼, 프레젠테이션 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글
상담 내용 |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목차 구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글쓰기 전반
신청 방법 | ① 글쓰기 센터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상담 〉 상담 신청' 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② 상담 희망 일시 24시간 이전에 신청(신청 확인은 MY PAGE)
비교과 포인트 | 지급 포인트 10점(최대 포인트 30점)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진리관 104호, ☎ 02-760-4354)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한성대를 여행하는 외톨이를 위한 안내서

참을 수 없는 공강의 가벼움 외로우니까 혼밥이다

때로 신입생들과 복학생들은 한성대라는 낯선 행성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 대체로 그것은 '혼자'라는 이름의 외로움-어쩌면 '아싸'일지도 모르는-이며,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그리 보기 힘든 유형의 문제 상황은 아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문제 상황에 처한 여행자들을 위해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다.

학술정보관

학술정보관은 뭔가 이름은 거창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냥 우리대학의 도서관이다. 문제 상황에 처한 많은 여행자들이 1차적으로 표류하고는 하는 곳이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외톨이들의 '발할라'라고 하더라도 하등 문제가 없다. 이 공간이 높은 효용도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캠퍼스 내에 있다는 점이다.

학술정보관 1층 로비에 체류하고 있는 체류민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해 남들까지 신경 써주지 않는다. 그냥 햇빛이나 받으면서 꾸벅꾸벅 조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곳에 앉아 아무런 방해 없이 아메리카노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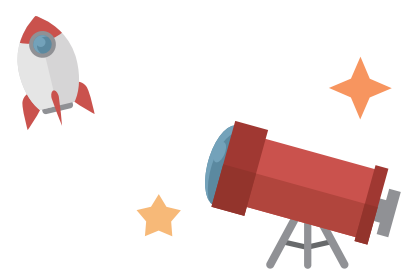
이 공간의 진면목은 바로 6층에서 드러나게 된다. 6층의 멀티미디어실에서는 훌륭한 보급품-영화, 애니메이션, 때로는 다큐멘터리-을 구할 수 있다. 이 DVD와 Blue-ray는 그 자리에서 시청이 가능해 공강시간을 흥미롭게 보낼 수 있다.

우리게임장과 코인노래방

비록 같이 놀아줄 사람은 없어도 대신 같이 놀아줄 기기는 존재한다. 역에서 내려 학교로 걸어오다 보면 보이는 '우리게임장'과 코인노래방은 때론 여행자들에게 아름다웠던 순간 속에 머무르게 하는 훌륭한 안식처가 되어준다.

짤랑거리는 동전과 함께 오락을 즐기다보면 동네 형들과 같이 오락을 즐겼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물론, 오락을 즐겨본 경험이 없더라도 용기를 낸다면 충분히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오락실의 체류민들은 이방인들에 대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인근의 코인노래방 역시 고독한 블루스를 즐기기에 적합한 장소다. 애타는 가슴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들 앞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난이도 곡을 열창해보자.



학생식당

당신만을 위한 식탁은 화장실 변기 덮개 위만이 아니다. 학식은 우리대학이 등록금을 다시 학생들을 위해 활용하는 몇 안 되는 환원 사업 중 하나인 만큼 당신은 우리학교 학생으로서 학생식당의 테이블을 차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 단돈 2,500원의 매력적인 가격은 단식투쟁 n일째에 들어선 당신의 주머니사정과 하모니를 이루어 당신을 학생식당으로 인도한다.

학생식당에서 반드시 점심시간에 정확히 학식을 먹을 이유는 없다. 삼삼오오 짝을 맞추어 밥을 먹으러 오는 거주민들은 대체로 정오라는 피크타임을 노리므로, 1시간 정도 엇박자를 치며 식당에 입성하면 느긋하면서도 여유로운 식사가 가능하다. 조금 부르주아적인 식사를 원한다면 교직원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스시 현

때로 행성거주민들이 '초밥 집입니다'와 상호명을 헷갈리곤 하는 바로 그 집이다. 한성대입구역과 학교를 오가며 쉽사리 볼 수 있는 이 혹성은 초밥세트 하나에 1만원 언저리라는 합리적인 가격과 조용한 분위기, 쉐프 앞에 놓인 바(Bar) 형태의 테이블 때문에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기 좋다.

당연히 음식의 질이나 맛은 학식 따위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가격은 절대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 법. 가끔씩 자신에게 상을 주고 싶은 여행자라면 한번쯤 들러서 힐링을 하도록 하자. 물론 자주 들르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 혹성은 당신의 지갑을 메마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당

이 왜성은 우리은하계와 이웃한 성신은하계와의 경계면에 위치해있다. 따라서 이 왜성에 방문하고 싶은 여행자들은 넉넉한 공강시간과 그에 따른 채비가 필요하다. 이 지구당의 특산품은 일본식 덮밥인데, 많은 여행자들이 홀로 끼니를 때우기 위해 방문하는 공간이다.

모든 테이블이 바 형태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혼자서 밥을 먹는데에 아무런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또한 반주로 즐길만한 맥주를 2천 원 선에서 제공하는데, 잠깐 헤롱거리며 다음 강의를 보내는 것도 어쩌면 훌륭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버스타고 세계여행

이태원 속의 작은 이슬람, 우사단로

어릴 적 디즈니의 '알라딘(Aladdin)'에서 느낄 수 있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영화 속 분위기를 기억할 것이다. 이 영화 속 배경이 된 이슬람 문화는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묘하게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다.

이태원역 3번 출구에서 나와 곧장 걷다 보면 터키식 디저트 카페 '케르반(KERVAN)'이 눈에 띈다. 따스한 조명 아래 진열장을 가득 채운 아기자기한 디저트들은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화려하다. 이곳에서는 바클라, 수 뷔렉, 터키젤리 등의 터키식 전통 디저트와 함께 터키식 커피와 같은 음료도 팔고 있다.

▲ 터키식 디저트 카페 '케르반(KERVAN)'

▲ 한국이슬람교 중앙성원의 입구

▲ 터키식 레스토랑인 '쌀람(SALAM)'의 '이스칸다르 케밥'

이곳을 지나 가파른 계단과 좁은 골목들을 지나면, 푸른빛의 아라베스크 무늬의 타일로 장식된 이슬람 사원 입구에 도착한다. 주변의 낮은 건물들과 대비되는 이슬람 사원은 입구부터 압도적이며, 안쪽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코란 읊는 소리는 신비로운 느낌을 더한다. 안으로 들어가면 히잡과 터번을 쓴 사람들과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함께 예배당 입구 위에서 고요히 빛나고 있는 '위대한 알라'라는 뜻의 아랍어를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흰색과 푸른색이 조화를 이루며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된 사원의 외관은 주변의 건물들과 비교해서 고고한 느낌마저 준다.

▲ 한국이슬람교 중앙성원의 모습

사원 주변에는 둘러보면 아랍어와 영어로 쓰인 간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태원의 이슬람 골목이다. 이곳에는 환전소, 중동식 음식점, 중동식 마트 등의 가게들이 있고, 모든 식당 앞에는 할랄 푸드(Halal Food)라고 적혀있다. 그 중 터키식 레스토랑인 '쌀람(SALAM)'에서는 이슬람 분위기를 강하게 느낄 수 있으며, 케밥을 비롯하여 터키식 볶음밥, 튀김과 같은 메뉴를 맛볼 수 있다. 터키어로 대화하는 손님들 사이에서 아라베스크 무늬의 타일과 접시, 식탁보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돼있는 가게의 인테리어를 구경하다 보면 실제로 터키에 온 듯한 착각이 든다.

우사단로는 이슬람권 문화만의 신비롭고 매혹적인 느낌을 가진 채, 사람들의 발길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 있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풍경들에 익숙해질 쯤이면 이미 시간은 훌쩍 지나있을 것이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naver.com